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동서독의 경우 분단 시기에도 상호 방문에 있어서 제약이 많지는 않았다. 동독 내 서베를린이 위치했기 때문에 서독 주민의 왕래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1970년대 초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교통 조약이 체결되고 우편 통신 관련 조약들도 체결되었다. 서독의 동방 정책은 당장의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목표를 두었다.

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합수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했다. 동독은 정상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주민 간의 왕래와 접촉을 허용하였다.

서독인들의 동독 왕래에 따른 통행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동독을 찾는 서독인들에게 강제적인 환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이득도 챙길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독인들은 안전한

남북 관계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개 동독을 여행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국가가 나뉘어도 이념이나 제도가 달라도, 자유롭게 왕래하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공산권 해체 시기 독일인들의 외침은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여행의 자유였다. 인위적인 장벽에 의해 개인의 이동과 만남이 제약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분단의 장벽 속에 갇혀 있는 남북 주민 간의 이동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은 동서독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못하다. 정전 체제가 존재하는 데다가 군사적 대치는 여전하다. 아직 한반도에는 남북 갈등, 남남 갈등, 북북 갈등 등 중층적 이념 대결 구조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왕래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장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북한과 새로운 협력을 도모하려 해도 남북 제재로 인해 쉬운 상황이 아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로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벌크 캐시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대북 투자와 전략물자의 이전 금지에 따라 공단 재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전까지 이러한 대북 제재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늦추면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한국 정부를 오히려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해 남북 관계에 비해 올해 남북 관계 개선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북중 관계이다. 최근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고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두 나라의 정부 간, 민간 간 교류도 확대 일로에 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 관계가 팍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보다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교류 협력의 대안적 기제를 중국에서 찾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동서독의 사례처럼 우리 또한 어렵더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이산가족들의 북한 방문과 왕래, 자유 관

광을 허용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보다 여행사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재개는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초기 이행 조치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포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결하기 어려운 미국은 개성공단을 제재의 예외로 하여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협상 집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을 미국에 예기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을 개혁 개방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우리와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대부분 시장을 선점하면 남북한 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도, 북한도, 100년을 앞서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들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막히면 지자체 간 교류의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이벤트 행사보다는 자치단체 간 교류의 큰 틀을 만들고 계속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협약식을 가졌다고 한다. 남북 관계의 경제 국면에서 지방의 이해와 지자체의 역할이 이래저래 중요한 시점이다.

社說

한빛원전 부설시공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영광 한빛원전 4호기에서 또다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 결과 확인된 구멍은 가로 331cm, 세로 97cm, 깊이 157cm로 이삿짐 박스 30여 개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크기다.

문제는 구멍이 발견된 곳이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 주는 최후 보루인 격납벽이라는 사실이다. 격납벽은 방사성 물질이 흐르는 증기발생기를 보호하는 시설로 이것이 뚫리면 방사능이 곧바로 공기 중에 누출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멍의 깊이가 157cm나 된다는 점이다. 격납벽의 두께가 167cm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콘크리트는 불과 10cm 두께에 불과해 언제든지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이 있다.

원전 당국은 이달 초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가장 큰 구멍은 90cm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밀 조사를 해 보니 이삿짐 박스 30여 개나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확인돼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구멍은 3호기 98개, 4호기 102개로 국내 원전에서 발견된 구멍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 당국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타설 후 다짐 작업이 불량해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설시공이 원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한빛원전은 부설시공 종합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6호기 모두에서 크고 작은 부설 공사가 확인됐다. 1·2호기에선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드러났고 3·4호기에선 구멍 외에도 너트와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느끼는 한빛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4호기가 10cm 벽으로 20년이나 버텼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불안감이 더할 것은 자명하다. 차체에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폐쇄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50만 도시에 수영장은 고작 12개뿐이라니

오늘은 개막 15일째를 맞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에 청소년수련관·빛고을노인건강타운·다목적체육관, 북구에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광산구에 빛고을국민체육센터와 남부대시립 국제수영장 등 모두 열두 곳이 전부이다. 수영 인원에 비해 과도한 이용객이 수영장에 몰리다 보니 일부 수영장은 사실상 수영장이 아니라 넓은 목욕탕에 가깝다는 불문소리도 나온다.

광주시에 따르면 150만 인구의 광주시에 공공수영장은 고작 열두 개 뿐이라고 한다. 이는 인구 13만 명만 한 곳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세계 5대 메가스포츠인 세계수영대회 개최 도시의 현실이 너무 허탈할 뿐이다. 수영대회 개최 이후 수영을 배우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공공수영장 부족으로 시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수와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은 동구에 동구 문화센터와 국민

체육센터, 서구에 광주 실내수영장·여성발전센터·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구에 청소년수련관·빛고을노인건강타운·다목적체육관, 북구에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광산구에 빛고을국민체육센터와 남부대시립 국제수영장 등 모두 열두 곳이 전부이다. 수영 인원에 비해 과도한 이용객이 수영장에 몰리다 보니 일부 수영장은 사실상 수영장이 아니라 넓은 목욕탕에 가깝다는 불문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내세워 기존 수영 시설을 재활용하는 등 수영장 시설을 최소화했다. 물론 저예산으로 대회를 치러야 하는 광주시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수영장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인프라 확충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수영 열풍을 이어 가는 것도 이번 수영대회의 레가시일 것이다.

종교칼럼

‘향원’(郷原)이라는 사람, 그는 누구인가?



황성호
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하지 말자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들은 이대처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동의는 없고 말을 이리저리 돌리지만 한다. 사람들의 평판과 외적인 모습에서 이들의 말과 행동은 충직하며 신실하고 고결함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들의 충직함, 신실, 고결함에서 담담함과 좌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속내를 가리기 위한 치장으로 거짓과 같다.

이슈 우회와 '박쥐 이야기'처럼 양다리 걸친 사람일까? '박쥐 이야기'는 이렇다.

숲에서 새들과 동물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동물들이 수가 많고 몸집이 크다 보니 박쥐는 동물들이 이길 것 같아 보였다. 박쥐는 날개를 접고 동물들 편에 섰다. 그러나 약세를 보였던 새들에게 독수리가 합세하면서 새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았다. 박쥐는 다시 날개를 펴고 새들과 함께 동물들을 공격했다. 결국 새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새들은 양다리를 걸친 박쥐의 행태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새들은 박쥐의 털을 다 뽑아 빛이 없는 어두운 동굴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벌을 받게 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날개를 접거나 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초원복집 사건이 떠오른다.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아 나라는 물론 그들이 추대했던 사람을 오히려 망쳐버렸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위치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

구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이비 지식인' 즉 '향원'(郷原)이다. 공자는 "향원은 도덕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가르침을 받은 맹자는 "그들은 말이 또 얼마나 번드르르한가! 말은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입만 열면 옛 성인을 운운한다. 그 행동도 또 얼마나 그럴듯한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지금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라는 태도로 은밀히 세상에 영합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맹자의 제자가 "일정 집단 내에서 독실한 인물로 통하고 있는 이상, 어딜 가든 항상 독실한 인물로 통할진대, 공자가 왜 그런 인물을 '도덕의 적'으로 규정했습니까?"라고 묻는다.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향원은 비판하려고 해도 꼬집을 데가 없고 비난하려고 해도 나무랄 데가 없다. 것처럼 속된 무리의 논리에 동화하고 세속의 편에 화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처신은 충직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그 행실은 염치가 있고 고결한 것처럼 보여서 못 사람들과 다 그를 환호한다. 그러나 그

는 늘 그 스스로 향상 올랐고 여기며 세상에 도를 실현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덕의 적'인 것이다."

향원은 충직함, 신실, 염치, 고결함 등의 덕목으로 자신을 치장한 다음 주위로 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여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데에만 몰두할 뿐이다. 이 향원의 존재 방식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가져다 준다. 자기관을 위하여 모두의 적이며 '도덕의 적'인 것이다.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일본보다 우리 안에서 누구 때문에 애를 수가 없다. 은인들과 대화에서 '향원(郷原)'이라는 단어를 듣고 검색해 보니, 그는 사이비 지식인이고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존중받는 존재였다. 협치를 이야기할 때 함께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자 할 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기득권과 같은 자리를 절대 내주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좌절을 맛보았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향원(郷原)'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고

‘마을 공동체’에서 ‘아파트 성(城)’으로 이주하는 비극



김용근
동강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

광주는 지금 19곳의 거대한 아파트 공사판이 벌어져 도시 탄생 이후 단시간에 공간 개혁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광주는 지역과 마을 공동체적 삶의 파괴와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공인 개발까지 전면일몰제적인 아파트 제품을 찍어 내 3년 이내 4만 여 사각 단지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주거가 아닌 한국형 아파트가 되어 공적 공간은 줄고 사적 공간은 넓어진다는 데 있다. 마을과 이웃이 있는 인간 본연의 행복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의 담은 성벽이 돼 성안에 성을 만들어 신분의 깃발을 달게 한다.

냉전 이데올로기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미국은 마약, 범죄, 테러와 전쟁, 폭동 대책 등의 사회적 '보안 압박증'을 전염시켜 주거 형태를 'CID'라 불

리는 안전과 보안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 병영적 주거 공동체를 전역으로 전파했다. 그러나 미국 CID 거주 형태는 인간의 질적 행복의 삶을 떨어뜨린다고 미국의 지식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모방한 한국형 아파트는 성(城)이다. 한국형 아파트는 특정 층과 계급만이 출입하는 문을 만들고 자체 내에 그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을 갖고, 외부를 잠재적 적으로 차단하는 전형적인 닫힌 군의 병영처럼 '단지'를 구축했다.

특히 모든 아파트 제품들이 이런 단지를 거듭 모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아파트 캐슬(성)은 전쟁의 도구로, 방범 초소, 보안 카메라, 출입구 통제 차단기, 성벽의 담 등을 견고하게 만든다. 도시민의 절반 이상을 마을에서 단지로 옮겨 가지고 있다. 이로써 아파트 단지는 공적 열림을 사적 소유의 지킴으로 만들어 닫힌 주거 공간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교류하고 살아가는 정서의 마을 사회는 없고 안전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나 홀로의 개인 집만 있는 고독자는 늘 땅을 밟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의 축수를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주택 정책은 시민들의 생활 공간 환

경에 대한 지역별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세계의 보편적 주거 문화에 대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 중 많은 곳에서 인구 감소를 걱정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고밀 개발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태도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이런 확립성 사태는 공동체 마을에서 거주자로서 교류하고 공동 관심사를 구현하는 인간적 삶과 행복이라는 마을과 주택 본연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시켰다. 그래서 마을은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진 아파트는 '얼굴 없는 이웃이 모인 집합군'으로 변했다.

더 이상 마을과 이웃, 더 나아가 지역의 이야기는 단절되고, 미디어 속의 가상적 이웃에 대해 모두 같은 이야기만 하는 영무세가 됐고, 절정된 이웃의 이미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 조정 받고 있다.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듯이 표준·획일화되고 대량 복제돼 생산되고 있다. 이 대량 소비재는 최대의 판매 이익을 위해 초밀집·고층화·집적화를 통해 군사적 성벽처럼 병영의 단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신분적 상황은 자본의 계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개별적 다의적으로 문화 자산과 사회적 자산 등이 포함된다. 재산이 없다고 그 자체가 신분적 무자격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신분은 아파트를 생산하는 제조사와 면적에 따라 단지 화시켜 계급화하고, 이 계급이 곧 신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런 단지의 블록에 의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화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생산 제조사의 브랜드 선택과 평수를 늘리는 것이 삶의 가치와 목표가 됐다. 사라진 마을 안에서는 오직 경제적 자산만이 비대칭적으로 크게 부각시키는 초무형 자산만이 남게 된다.

아파트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재탄생시키려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 모든 아파트의 각 라인 입구 1층 양쪽 집을 공적인 휴게 사랑방 형태의 개방된 공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공간 확보는 보안 감시망이 필요 없게 되고, 방문자를 마중해 접대하고, 주민들의 수다의 장소가 될 수 있어 진정한 마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이럴 때만이 마을 정신은 살아나고 잃어버린 문화와 사회적 자산이 회복되며 이웃 이야기, 마을 이야기, 지역 이야기가 소통하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無等鼓

'마린 보이' 박태환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다. 남자 자유형 400m 풀에 썼지만 부장 출발로 발길질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다. 기막히고 억울했을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해 물속에서 혹은 물 밖에서 흘린 땀방울이 얼마인대, 15세 소년은 감독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두 시간 가까이 눈물을 마구 쏟아 냈다.

그리고 2년 뒤, 고등학생이 된 박태환은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마침내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절치부심 노력 끝에 아테네의 눈물을 베이징의 금으로 바꾼 것이다.

'제2의 박태환'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등장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에 출전한 여수 문수중 3학년 김민섭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교사인 아버지 손에 이끌려 수영을 시작한 그는 4학년 때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일찌감치 소질을 보였다. 실업팀 형들을 모두 물리치고 국가대표에도 선발됐다. 박태환과 같은 15세의 나이로 세계 무대에

데뷔한 그는 점영 200m 예선에서 2분0초95의 기록으로 전체 47명 중 32위를 차지했다. 비록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민섭은 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물이 잘 받는 체질이라 한다. 그래서 점영을 '인생 종목'으로 택했다. 점영은 물을 잘 이용해야 올바른 자세와 좋은 기록이 나오는 영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170cm에 못 미치는 신장인데, 작은 키는 경영 종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뒤집어 보면 그래서 더욱 대단하다. 한참 성장기라 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지 못한 탓에 스트레칭도 심하게 했는데 아테네의 눈물을 베이징의 금으로 바꾼 것이다.

박태환 옆에 노민상 코치가 있었다면 김민섭 옆엔 안종택 감독이 있다. 전 국가대표 총감독을 역임한 그는 정다래를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키운 명장이다. 김민섭은 내년 도쿄올림픽과 그 이후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속속 크는 키와 함께 기량도 날로 성장한다면 박태환을 능가하는 선수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유재만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기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